

# 열정과 의지로...시민 연극배우들 '꿈의 무대'

## 금보다 귀한 '옥'

나주박물관, 17일 국제심포지엄

### 북구시민연극팀 '시나브로', '콘테스트 쓰담쓰담' 공연

#### 18일 북구문화센터...코로나 전디는 이에게 위로메시지

누구나 마음 속에 꿈을 품고 산다. 어떤 이는 그 꿈을 마음속에만 간직한 채 살아가는 반면 언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 마음속에 '무대'라는 꿈을 품고 살아온 평범한 시민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연극에 도전해 눈길을 끈다. 14명의 광주 시민들로 구성된 북구시민연극팀 '시나브로'가 창작 연극 '콘테스트 쓰담쓰담'을 18일 오후 2시와 5시 북구문화센터에서 선보인다. 지난 12일 찾은 광주시 북구 삼각동의 한 연습실. "내가 왜 부자요? 돈이 많은게? 아니어, 땅이 많은게? 그것도 아니어, 자식이 많은게 부자제" 입구부터 찜찜한 대사가 들린다. 안으로 들어가자 뜨거운 열정과 프로 못지 않은 연기력으로 뭉친 '시나브로'가 얼마 남지 않은 공연 연습에 한

창이었다. 딸 연홍이의 춤 솜씨, 막내아들 노래 솜씨 자랑에 여념이 없는 부부와 며느리 자랑을 수도 없이 해대는 최 할매와 김 할매 등은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친근한 캐릭터였다. 배우들은 대사와 액션을 동시에 하려니 말이 꼬이기도 하고, 가끔 대사를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무대에 오를 결전의 그날을 위해 쉬지않고 연습하고 또 연습했다. 이들 못지 않게 열정적인 연출가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한시도 배우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의 대사, 표정, 움직임까지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시나브로'는 북구문화센터가 운영하는 시민연극학교를 통해 탄생했다. 북구문화센터는 지난 9월 광주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연극학교 학생들을 모집했고 30대부터 60대, 직장인부터 주부, 시인, 퇴직한 교사까지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 연극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20여명이

모였다. 그중 윤삼현·강연홍·오주삼·김순재·조재심·주소영·강미선·박종석 등 14명은 '시나브로'를 꾸려 시민 작가 류형숙·김윤아의 작품 '콘테스트 쓰담쓰담'을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이들은 양정인 연출의 지도 아래 9월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연습에 몰입했다. 최근에는 매일 만나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작품은 광주시 북구를 배경으로 칭찬 경연 대회인 '콘테스트 쓰담쓰담'에 출연한 5팀의 이야기를 담았다. 계속되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공동체를 이뤄가고자 북구청이 행사를 마련했다는 설정이다.

1막 6장으로 구성됐으며 심술쟁이 최 할매를 변화시킨 긍정에너지 김 할매 카리스마를 지닌 고 할매, 동물보호소 철창 속에서 기억없는 입양을 기다리는 반려동물 블랙과 째, 수십 년째 마을 진입로 청소와 꽃길 가꾸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노회자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보듬어가는 취지의 작품은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심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19를 전디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다.

"살면서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막연히 무대에 올라가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지인의 추천으로 시민연극학교에 참여하게 됐는데 연극에 '연'자도 몰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배경에 있는 나무 역할로라도 무대에 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죠. 몇달 사이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남은 시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공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역을 맡은 최현정(46)씨는 "생전 처음 무대에 서는데 생각만으로도 가슴 뛰고 설렌다"며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정인 연출은 "시민들이 직접 작품도 쓰고 연기도 하고 다한다. 열정과 의지가 대단하다"며 "이 작품이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 가족 또는 이웃,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문화센터 시민연극학교는 이번 작품을 시작으로 북구 8경, 광주동물보호소 등 북구만의 이야기를 꾸준히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글·사진=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여수 안도패총 결상시식

고대 옥문화를 아시아 시각에서 비교해 보는 국제 학술심포지엄이 열린다.

국립나주박물관(관장 은하수)은 오는 17일 '아시아의 옥 문화'를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특별전 '금보다 귀한 옥' (오는 2월 6일까지)과 연계해 열린다. 고대 마한과 백제권의 옥 문화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고대 아시아의 옥 문화를 비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에서는 '아시아의 옥 문화 연구'라는 주제의 기조강연, '고대 구슬 연구를 위하여' (권오영 서울대학교), '고대 동남아시아 옥 문화의 연구 현황과 과제' (허진아 전남대)가 발표된다.

이어서 영상 발표로 '중국 남방 고대의 구슬장식: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후 500년까지' (홍사오춘·호주국립대), '고대 일본 옥 연구의 현상과 과제-대의 교섭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니자와 아리·나라문화재연구소)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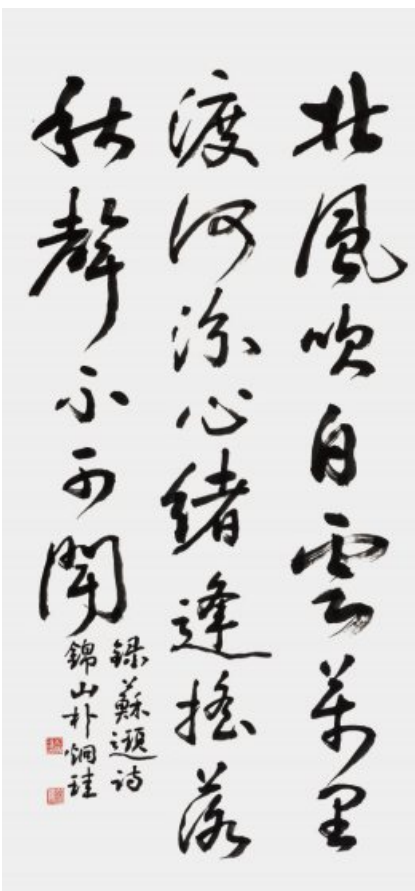
2부는 '마한·백제 옥 문화 연구'를 주제로 마한·백제권의 옥 문화의 변화 모습을 살펴본다. '마한-백제 권역 출토 유리구슬의 생산과 유통' (박준영 서울대), '영산강유역권 마한-백제 구슬의 특징과 변천' (김미령 호남문화재연구원), '호남지역 백제고분 출토 경옥제 곡옥의 과학적 분석' (유혜선 국립중앙박물관)을 주제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서울대 권오영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 간의 토론이 이어진다. 한편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나주박물관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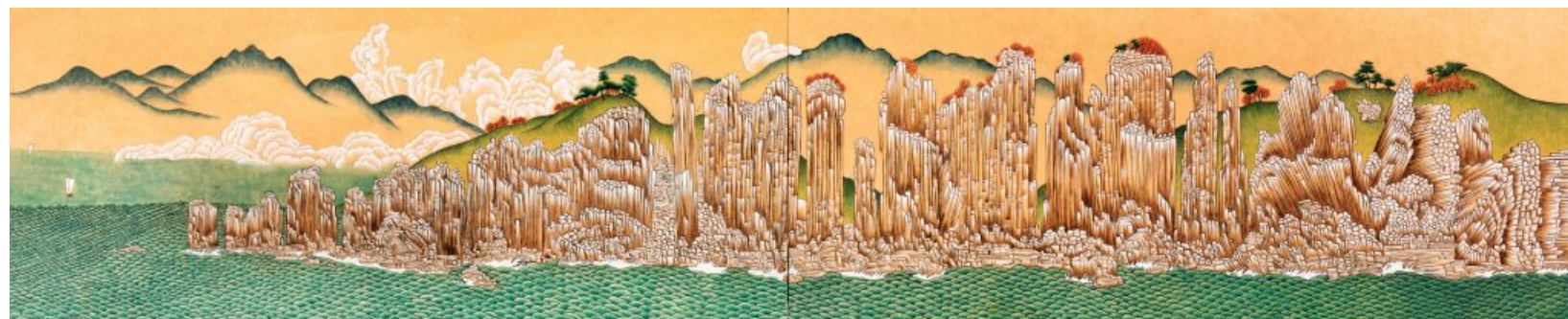
## 콘테스트 쓰담쓰담



오는 18일 광주 북구문화센터 무대에 올리는 창작 연극 '콘테스트 쓰담쓰담' 연습에 한창인 시민배우들.



서예(한문) 부문 대상 박형규 작 '소정시'



민화 부문 대상 김정애 작 '해금강총석정'

## 대한민국 한국화 대전 입상작 전시회 19~23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 319점 입상...민화 김정애 '해금강 총석정'·서예 박형규 '소정시' 대상

제33회 대한민국 한국화 대전 입상작 전시회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수공예진흥회가 주관한 이번 공모에는 민화, 한국화, 문인화, 서예(한문·한글), 캘리그라피, 서각 분야에 모두 583점이 출품돼 대상 2점, 최우수상 8점, 우수상 12점, 특별상 29점, 특선 11점, 입선 127점 등 모두 319점이 입상했다.

대상(상금 500만원)은 민화 부문에서 김정애(광주) 작가의 '해금강 총석정', 서예(한문) 분야에서 박형규 작가의 '소정시'가 받았으며 최우수상은 노승희 작가의 '희망가' 등이 수상했다.

한국화, 문인화, 서예 부문 등 전반적으로 출품작 수가 감소한 가운데 민화 분야는 47%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또 올해 처음 공모에 포함된 서각과 캘리그라피 분야에도 많은 작가들이 작품을 출품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심사위원들은 "출품작수는 감소했지만 작품의 질적 수준과 전통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감각의 수용, 재료와 표현 기법의 다양성, 현대 미술의 변화에 적응하는 순발력 있는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고 평했다.

부문별 최우수상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화=노승희 '희망가' 김수경 'behind', 이인숙 '거연정' ▲민화=정희숙 '문자도 병풍' ▲문인화=이상기 '국화', 조인자 '화창한 날에' ▲서예(한문)=박영길 '신광수 선생 시' ▲캘리그라피=최희은 '일사귀 하나'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올해 국민이 뽑은 잘 다듬은 말

###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

반려동물 실종이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우울감을 뜻하는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이 올해 우리말로 다듬은 외국 용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말로 선정됐다.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은 '팻 로스 증후군'을 대체한 말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립국어원이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 일환으로 외국 용어를 대신할 말을 선정한 조사에서 집계됐다. 98% 이상이 '팻 로스 증후군', '팻 코노미'를 대체한 '반려동물 상실 증후군'과 '반려동물 산입'을 뽑았다.

다음으로 '잡크래프팅'을 대체한 '자발적 직무 설계'가 97% 호응을 얻었다. 또한 우리말로 다듬기 위해 발굴한 어려운 외국 용어 가운데 쉽게 바꾸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용어는 '킵 워커' (80%)로 나타났다. 국어원은 임시로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를 뜻하는 '킵 워커'를 '초단기 노동자'로 대체했다. 한편 국어원은 올해 모두 71개 외국말을 우리말로 다듬었다. 우리말로 대체한 말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 일반 분야로 전체 71개 중 26개를 차지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